

홈 > 뉴스 > 뉴스in > 팜

신품 '메디커튼', 발명특허대전 대통령상 수상

포스텍과 공동연구 통해 개발

2015년 12월 01일 (화) 15:10:10

최봉영 기자 bychoi@sisamediin.com

신풍제약(주)(대표이사 유제만)과 포스텍(한세광 교수)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유착 방지제 “메디커튼”이 2015년 11월 26~29일 코엑스에서 진행된 ‘2015 대한민국 발명 특허대전’에서 대통령상(대상)을 수상했다.



▲ (우) 신풍제약(주) 유제만 대표이사과 포스텍의 한세광 교수.


“메디커튼주사”는 생체적합성도 되므로 생체적합성과 상처치유력이 우수한 ‘히알루론산(H.A)’과 항혈액응고 및 항염증 작용이 뛰어난 ‘하이드록시에틸스타치(HES)’를 복합하여 수술 후 유착방지용 주사제로 개발된 제품이다.


고점탄성 히알루론산에 의한 물리적 장벽(막) 형성 기능 뿐 만 아니라 유착 발생의 근간을 이루는 혈전 및 염증형성을 억제하여 탁월한 유착방지 효능을 나타내는 것이 다양한 임상시험으로 입증됐다.

메디커튼은 이러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지난 2012년 자궁경 수술 후 유착방지 허가를 받은 이후, 2013년에 복부(복강경) 수술과 척추수술에 대한 적응 증을 연이어 획득했다.

신풍제약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해 1월 '갑상선 수술', 10월에는 '비/부비동 수술 후 유착감소 효과'에 대한 적응 증을 추가해 유착방지제로서 가장 넓은 범위의 5개의 적응 증을 보유한 제품이 됐다.

© 시사메디in(<http://www.sisamediin.com>)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| 저작권문의

 인쇄하기

 창닫기